

‘유동인구 5분 단위 확인’ 빅데이터 코로나 확산 방지

SKT, 방역 노하우 UN에 전수



‘빅데이터 국제회의’서 발표
국민 이동 빅데이터로 분석해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활용
상권분석 지원 등 사례 소개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T타워, /손진영 기자

SK텔레콤은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빅데이터 유엔 글로벌워킹그룹과 한국 통계청 주관으로 열리는 ‘제6회 빅데이터 국제회의’에서 자사의 빅데이터 플랫폼 ‘지오비전’ 기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발표한다고 8월 31일 밝혔다.

지난 2014년 창설된 ‘빅데이터 유엔 글로벌워킹그룹’은 한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 통계청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빅데이터와 지속 가능한 발전 ▲위성 데이터 및 지리·공간 데이터 ▲모바일 데이터 ▲SNS 데이터 등 다양한 영역의 빅데이터 관련 연구를 공동 시행하고 있다.

이번 ‘빅데이터 국제회의’의 주제는 ‘빅데이터가 코로나19 대응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통계 전문가들은 코로나 대응 및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 추진에 빅데이터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SK텔레콤은 이번 회의에서 통계청과 함께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인구 이동 조사 사례를 발표한다. 모바일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발생 후 국민들의 ‘이동’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를 30분 이상 벗어난 경우)량을 분석한 결과는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활용됐다.

또 SK텔레콤은 코로나19 대응 확산 방지를 위해 자사의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유동인구 분석 서비스 ‘지오비전’을 여러 공공 기관에 무상 제공한 사례를 발표했다. 공공 기관들은 ‘지오비전’을 활용, 특정 지역 방역 강화 및 핀포인트 순찰을 시행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나서기도 했다.

‘지오비전’은 전국 방방곡곡의 유동인구를 5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빅데이터 및 공간 데이터 분석 서비스다. SK텔레콤이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지라프’를 통해 60테라바이트(TB)에 이르는 데이터를 5분 단위로 분석하고 시각화 작업까지 완료해 제공한다.

이 외에도, 지난 2016년 부산시와 세계 최초 통신 데이터 기반 국가 통계 작성 사례와 함께 유동인구 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상권 분석 지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등 다양한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발표했다.

SK텔레콤장흥성광고·데이터사업 단장은 “앞으로도 5G, AI 등 ICT 역량을 통해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대한항공 항공기.

대한항공, 위기 속에도 굳건 글로벌 고객만족 16년째 1위

글로벌경영협회 우수기업 선정
만족도, 충성도, 역량 등 평가

대한항공이 16년 연속 글로벌고객만족도 1위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항공은 8월 31일 진행된 한국글로벌경영협회(GMA) 주관 ‘2020년 글로벌 고객만족도(GCSI) 우수기업’ 평가에서 항공여객운송 서비스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국글로벌경영협회에서 주관하는 글로벌고객만족도(GCSI)는 고객들의 품질 만족도, 글로벌 역량 및 고객충성도 등을 평가해 매년 부문별 최우수 기업을 선정한다.

대한항공은 차별화된 서비스, 차세대 항공기 도입 등 고객 서비스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아 항공여객운송 서비스 부문에서 2005년부터 16년 연속 정상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도 수하물 탑재 안내 서비스 개발, 셀프 서비스 확대, 기내 방역 강화 등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 및 안전 운항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객들의 막연한 항공여행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항공여행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모든 항공기에 대한 철저한 기내소독으로 안전한 기내 환경을 유지하고, 법적 기준인 월 1~2회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국내선은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기와 인천에서 미주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독 작업을 추가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항공기 운항 중에도 고객들에게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기내 환경을 제공한다. 모든 여객기에 장착된 헤파필터를 통해 침방울(비말), 에어로졸, 바이러스를 모두 걸러 가열 멸균된 청정한 공기를 기내에 공급하고, 객실 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에어커튼’ 방식의 기내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기내 바이러스 확산을 최소화 하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 7월 세계 최대 규모의 여행 사이트인 트립어드바이저가 주관하는 ‘2020 트래블러즈 초이스 어워드’에서 여행객들이 선택한 세계 10대 항공사 3위에 선정된 바 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SKT, 협력사 위한 비대면 채용박람회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
모비젠 등 협력업체 47곳 참가

SK텔레콤이 코로나로 인해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위해 ‘비대면 채용 박람회’를 연다.

SK텔레콤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 간 온라인 채용사이트 ‘사람인’ 메인화면에 ‘SKT 비즈파트너 채용관’을 개설하고, 협력사의 인재 채용을 지원한다고 8월 31일 밝혔다.

이번에 참가하는 SKT 협력사는 5G, AI 분야의 강소기업인 엘케이테크넷, 베이넥스, 네오넥스소프트, 와이드

넷엔지니어링, 에치에프알, 오티씨테크놀로지, 모비젠 등 총 47개 사다. 참가 회사의 업종은 전기통신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서비스업 등이다. 모집 직군은 연구개발, 경영지원, 현장지원 등으로 다양하다.

취업준비생들은 SKT 비즈파트너 채용관에서 참여기업에 대한 회사 소개 자료 및 모집 요강을 확인하고, 채용 담당자와 질의 응답하며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SKT는 전문 디자이너를 통해 각 협력사의 소개 브로슈어를 제작했으며, 협력사별 배너 광고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이번 ‘비대면 채용 박람회’는 SKT가 협력사를 도울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기획됐다.

SKT는 비대면 채용 지원과 함께 SK동반성장아카데미 사이트에서 직무 및 ICT 교육을 온라인으로 무상 제공해 협력사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언택트 솔루션 등도 협력사에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SKT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1100억원 규모 상생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위기에 처한 협력사들에게 동반성장펀드를 통해 긴급 자금을 대출해 주기도 했다.

/김나인 기자

LGU+, 8월 ‘5G AR 교육 콘텐츠’ 수출

이동통신사 KDDI와 수출 계약

LG유플러스는 일본의 이동통신사 KDDI와 증강현실(AR) 교육 콘텐츠 ‘U+아이들생생도서관’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8월 31일 밝혔다. 해외 통신사에 5G 기반 교육 콘텐츠를 수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유플러스의 이번 AR 콘텐츠 수출은 지난해 하반기 차이나텔레콤(중국)에 5G 콘텐츠 및 솔루션을 수출하고, 올해 홍콩텔레콤(홍콩), KDDI(일본), 청화텔레콤(대만)에 VR 콘텐츠를 수출한 이후 연이어 거둔 성과다.

U+아이들생생도서관은 모바일 앱과 IPTV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특화 AR 교육 콘텐츠다. 전 세계 유명 아동도서 출판업체 24개사와 제휴

해 영어도서 230편을 3D AR로 제작, 독점 제공 중이다.

특히 영어학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5세부터 9세 어린이들이 동화 속 장면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실감형 3D AR 콘텐츠를 보며, 자연스럽게 영어에 익숙해 지도록 하는 콘텐츠가 강점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번 계약은 양국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서면으로 진행됐다. 양사의 AR·VR를 포함한 5G 서비스 담당조직과 개발조직, 해외제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들이 7개월에 걸쳐 내용을 검토한 후 최종 계약을 마무리 지었다.

U+아이들생생도서관은 오는 1월부터 KDDI를 통해 ‘AR 매직 라이브러리’라는 서비스로 제공된다. LG유플러스는 서비스 중인 유명 해외 출판사



모델들이 ‘U+아이들생생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의 영어 동화 콘텐츠를 지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또 KDDI가 양질의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LG유플러스의 AR 운영 및 서버·트래픽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KDDI는 지난해부터 정기적으로 상품 및 기술개발 관계자를 대거 LG유플러스에 파견해 AR·VR 콘텐츠 체험, 5G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방문 등을 하며 면밀한 조사를 실시했다. /김나인 기자

‘U+알뜰폰’ 고객도 결합할인 혜택 받는다

LGU+ 최대 1만3200원 할인

LG유플러스는 자사 고객만 받을 수 있던 ‘참 쉬운 가족결합’을 9월 1일부터 U+알뜰폰 고객에게까지 확대한다고 8월 31일 밝혔다.

LG유플러스의 모바일, U+인터넷 서비스 이용자가 U+알뜰폰을 함께 이용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참 쉬운 가족결합’ 혜택이 제공된다.

참 쉬운 가족결합을 통해 기존에 가족 구성원 중 다른 이동통신사를 이용하던 고객이 더 저렴한 U+알뜰폰으로 바뀌도 결합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U+알뜰폰을 이용하면서 다른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던 고객들도 U+인터넷으로 바꿔 결합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U+알뜰폰이용자는 U+인터넷을 결합해 5500~1만32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결합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간 U+알뜰폰의 저렴한 가격에도 기존에 사용하던 통신사의 결합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고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은 설명했다.

결합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판



모델이 유심 카드를 들고 U+알뜰폰 요금제를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매하는 U+알뜰폰 사업자와 U+알뜰폰 파트너스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9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상상초월 U+알뜰폰 추석상품권 특전’을 연다.

이벤트 기간 중 편의점, 홈플러스, 다이소, 온라인마켓에서 유심을 구매하고, U+알뜰폰에 가입하면, LG유플러스가 제휴처 상품권 또는 포인트를 선물로 지급한다.

또 알뜰폰 사업자들이 별도로 준비한 스타벅스 텀블러, 에어팟프로3, 다 이순청소기 등 사은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김나인 기자